한국인 관심 급증 해외 여행지 1위는 포르투갈

최근 1년간 한국인 해외 여행객의 관심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여행지는 포르투갈과 헝가리로 조사됐다.

5일 'KBS' 에 따르면 여행정보업체 스카이스캐너는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 여행객이 검색한 해외 여행지 중 작년 대비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을 조사한 결과 포르투갈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확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바람이 불면서 장거리 여행지가 전통적 인기 지역인 서유럽을 벗어나 남유럽과 동유럽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 한국 TV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 소개된 여행지 검색이 늘어나는 등 방송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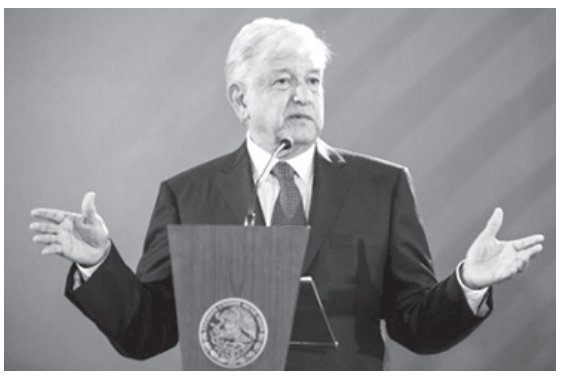
포르투갈 검색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 그 뒤를 헝가리(74%), 베트남(46%), 오스트리아(44%), 러시아(42%), 터키(39%), 말레이시아(25%), 이탈리아(23%), 크로아티아(20%), 그리스(20%) 등이 뒤를 이었다.

스카이스캐너 관계자는 "포르투갈과 헝가리는 서유럽보다 비교적 저렴한 물가에 낭만적이면서 경관도 매력인 곳" 이라며 "교과서 같은 유럽여행 루트에서 벗어나 근교 소도시 등 새로운 유럽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 설명했다.

아시아 여행지 중에선 베트남의 인기가 눈에 띈다. 최근 몇 년간 다낭, 호이안으로 시작된 관광 열풍이 냐짱, 푸꾸옥 등으로 확대되면서 베트남이 한국인의 선호 외국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같은 기간 검색량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0개 목적지는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대만, 홍콩, 중국, 괌, 말레이시아 등 순이다. 이 가운데 미국을 빼면 모두 한국에서 직항 5시간 안팎 걸리는 곳이어서 주말이나 짧은 연휴에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여행지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암로 신임 멕시코 대통령, '대통령 면책특권' 폐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 암로 · 사진)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거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이 끝나가고 있다." 며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정에 서는 것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위해 상원에 발의안을 보냈다." 며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다." 고 덧붙였다. 멕시코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반역죄를 범해야만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로는 취임을 축하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새로 취임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축하한다." 며 "그는 멕시코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 어마어마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고 적었다.

암로는 지난 7월 멕시코 대선에서 모레나(MORENA · 국가재건운동), 노동자당(PT) 등 중도좌파 정당으로 이뤄진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대의 통합 후보로 나서 53.2%를 득표하는 압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이는 89년간 이어진 보수우파 정권의 장기집권 속에 만연한 부패, 폭력, 빈곤,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평가됐다.

그는 지난 1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취임 연설문에는 제4차 변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긴축재정,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 존중, 국내 산업 발전 프로젝트, 인간다운 삶 보장, 대통령 권위 철폐, 국군 개혁, 외교원칙, 본인의 신념과 다짐 등이 담겼다.

암로는 취임 전과 마찬가지로 민항기를 이용하고 전용기 매각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자신의 파격적인 대선 공약을 하나둘씩 실천하며 소통 · 소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면적 2배 넘는 아마존 열대우림 사라져

'지구의 허파' 로 일컬어지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브라질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과학적인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가 시작된 1988년 이래 30년간 78만3천 km^2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국토 면적의 배를 넘는 것으로, 광산 개발과 농축산업 생산 확대를 위한 불법 벌목과 방화, 장기간의 가뭄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INP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7천900km^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2008년(1만3천km^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95%는 불법 벌목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INPE의 공식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88년 이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했던 것은 2004년의 2만7천772km^2였다.

INPE의 조사는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9개 주에 속한 '아마조니아 레가우(Amazonia Legal)' 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km^2에 달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안데스 지역에서 시작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가로질러 브라질 대서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길이는 총 6천900km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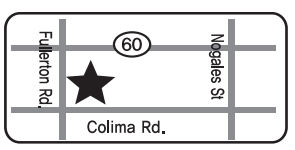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한국식 이발/염색 그레이스 이발관
Grace Barber Shop

- 이발 Haircut $9.99
- 염색 Dyeing $20
- 이발 & 염색 Haircut & Dyeing $30
- 이발 & 샴푸 Haircut & Shampoo $15
- 면도 Shave $15

Tel. 626.810.2261
562.714.5238
18381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